

나주시, 목포 제치고 도내 市 중 '출산 증가율 1위'

올 11월 기준 출생아 670명
전년 동월대비 5.85% 증가
출산장려금·돌봄정책 호응

나주시 출산율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남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1위로 올라섰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출생아 수는 670명으로 전년 동월(633명) 대비 5.85%(37명) 증가했다.

도내 시 단위 지자체 5곳 중 올해 1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은 나주시와 목포시로 이 중 나주시가 증가율 1위(106%)를 기록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출산장려금 6개월 의무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지원 액수도 크게 늘렸다.

지난 7월부터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해 신생아 가정 양육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

출산 이후 가정에만 지원했던 '가사 돌봄 서비스'는 6개월 이후의 임신부 가정으로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둘째아 이상, 고위험군, 다태아 가정 등으로 제한했던 서비스 대

상 문턱도 낮춰 모든 임신부에 지원하고 있다.

차별 없는 지원은 난임 부부에게도 해당 된다.

나주시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주형 난임시술비'와 난임 조기진단,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난임 검진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출생 이후 자녀 키우기 좋은 연중무휴 쉽 없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한 점도 눈길을 끈다.

나주시는 도내 최초 365일 시간제 보육실을 지난 9월 빛가람동 킨더브레인 어

린이집에 문을 열었다.

이 어린이집은 6개월부터 7세(미취학) 아동을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돌봐준다.

빛가람동에 이어 하나금융그룹이 공모한 '365하나돌봄' 사업에 남평어린이집이 선정되면서 내년 4월부터 남평읍에서도 주말·공휴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차별두지 않는 보편적 정책 지원과 임신과 출산, 보육과 교육까지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나주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담양군-영광군 '맞손'

담양군과 영광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18일 담양군, 영광군 등에 따르면 양 기관·사회단체는 지난 14일 영광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고 상호 기부를 통해 양군의 우호를 다지는 취지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함께했으며, 양 지자체의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담양군에서는 이병노 담양군수와 산림조합, 소상공인연합회(송진현), NH농협은행 담양군지부(오정균), 담양군 이장연합회(이용길), 대숲맑은표고버섯작목반(한정숙)이 동참했으며, 영광군에서는 강종만 영광군수와 산림조합(정태범), 소상공인연합회(신종회), 임업후계자협회(양강석),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조기영)가 동참했다.

이날 이들은 1000만원의 기부금을 상호 기부했으며, 양 기관의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떡깨비주문·할인 받으세요 영광군, 1인 2회 할인 혜택

영광군은 크리스마스 및 연말을 맞이하여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공공배달 앱 '떡깨비'로 주문하면 5000원 즉시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에 떡깨비에서 1만5000원 이상 주문하면 5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한 사람당 기간 중 2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서 발행한 자체 할인쿠폰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 쿠폰은 예산 소진 시까지 발행되기 때문에 기간 내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떡깨비는 충전 시 10% 인센티브를 받는 영광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영광=김도윤 기자

담양장터 농특산물 할인 이달 말까지 전품목 20%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연말을 맞이해 오는 31일까지 지역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 '담양장터'에서 전 품목 20%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오프라인 직매장(담양군 담양읍 면양정로 730)과 온라인 쇼핑몰(www.damyangmk.kr)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오는 23-25일 열리는 '2023 담양 메타뮤지컬페스티벌'에 방문한 관광객이 담양군 우수 농식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담양장터는 담양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으로,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는 담양군이, 판매장은 지역농산물 가공업체가 모여 담양장터 주식회사를 설립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

한전KDN '최우수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한전KDN은 최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FKI타워에서 열린 '2023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은 산업부와 중기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모범적인 경영활동으로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경영에 기여한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전KDN은 KDN Eco-Life 캠페인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 플로깅 캠페인, 폐전산 제품 친환경 처리 등 생활 속 환경보전 활동을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협력기업 ESG경영 도입지원, 일자리 창출 PR챌린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에 지원해 동반성장 가치를 높인 성과도 인정받았다.

앞서 한전KDN은 에너지ICT 전문기업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사업 확대와 다양한 사회적 가치활동 실천으로 '2023 글로벌스탠더드 ESG경영대상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다.

혁신도시=김용의 기자

함평 평촌~지변 마을 준공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함평군은 지난 15일 평촌마을과 지변마을을 연결하는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운영장 함평군의회위원장, 군의원,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월야리 마을 주민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상의 군수와 이개호 국회의원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16억원(특별교부세 6억원, 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착공했으며, 월야중학교에서 월야리 지변마을까지 길이 L=1.1km, 폭 8m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군은 이번 공사를 통해 월야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화순군은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해 화순군 4-H 연합회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4-H연합회, 아이디어 발굴 선진사례 견학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난 13, 14일 청년 농업인의 아이디어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화순군 4-H연합회(회장 유홍렬) 회원이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업환경 변화 속에 미래 농업을 선도할 지역 리더를 육성하고자 우수농장 현장 견학을 비롯해 다른 지역 융복합 관광자원 상품개발 현황 조사를 배우는 교육의 시간이자 회원 간의 정보와 노하우를 교류

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우수농장으로 견학한 '상평농원'의 박익환 딸기 마이스터는 스마트팜 시설, 행잉수경재배기술, 곤충 천적시스템 외에도 창업 스토리 및 경영 노하우와 실질적인 조언을 회원들에게 전했다.

'꿈지람농원'에서 회원들은 농촌교육농장과 융복합 산업화와 최신 농업 현장을 둘러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유홍렬 4-H연합회장은 "우수한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을 견학하고 4-H연합회원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화순지역에 선진농장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4-H연합회원들이 화순농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화순농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장성군, 내년도 주민편익사업 '조기 발주' 온 힘

설계지원단 운영... 자체설계 농로 포장 등 사업 2월 발주

장성군이 2024년 주민편익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 내년 2월2일까지 합동집무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도 장성군 주민편익사업은 △용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마을안길 재포장 등 185건 58억 원 규모다.

이중 177건(49억 원)이 자체설계 사업이다.

군은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설계지원단을 운영해 자체설계 작업에 돌입한다. 사업 발주 일정을 앞당기고 5억여원의 설계용역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지원단은 읍면 시설직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말 현지 조사와 현황 측량을 마친 뒤 내년 2월 초까지 설계를 완료하게 된다. 2월 중 사업 발주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발빠른 사업 추진으로 주민 생활 여건

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한편,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에도 일조할 수 있다.

공사감독 요령, 공사 설계 주의사항 교육도 마련하는 등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농업 종사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급적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영광군, 전남도 인구정책 추진 종합평가 '우수상'

영광군이 전남도가 주관하는 인구정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 성과를 달성했다.

영광군은 최근 여수 라마다프라자에서 열린 '2023년 전남도 인구정책 추진 종합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는 인구문제 극복 노력 정도를 비롯해 정책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 등을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영광군은 지난해 장려상에 이어 올해는 한 단계 올라선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으로 이어진 정책은 '청년들이 함께 꿈꾸며 도전하는 청년마을 조성'과 '난임부부, 아이 원하면 끝까지 지지하는 영광' 시책이다.

영광=김도윤 기자